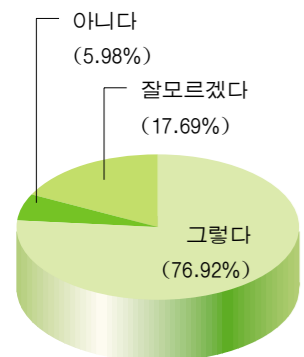


학생들은 학생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① 총학생회

총학생회 관련 설문조사

1. 총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학생들 77%, “총학생회 필요”

학교정책에 학생의견 반영 요구 높아 그동안 총학생회 평가 대체로 부정적

제212회 총학생회 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학생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비례추출법을 통해 총 24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 관련기사는 두 번에 걸쳐 연재된다.

우리학교 학생의 77%는 총학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총학생회는 필요없다고 답한 학생들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이다. 또한 앞으로 총학생회가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역할을 묻는 질문에 '등록금 투쟁 등 학교 주요 정책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이 36%로 가장 높았고, '복식 문제 해결을 대학 당국에 요구'가 31%를 기록했다.

반면, 정치적·사회적 사안에 총학생회 입장을 표명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2%에 그쳤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탈정치화 현상은 우리학교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우리학교 총학생회가 한총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는 질문에, 62%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한 총학생회가 한총련에 속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질문에는 관심없다고 답한 학생이 41%로 가장 많았고, 반대가 21%, 적극반대가 7%를 기록했다. 그러나 적극 찬성에 13%, 찬성에 18% 학생들이 응답하기도 했다.

그동안 총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먼저 지금까지 구성됐던 총학생회 활동에 만족하는지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1%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한다는 학생이 24%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무척 불만족한다는 학생도 4%를 기록했다.

총학생회가 활성화 돼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61% 학생이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24% 학생이 활성화 돼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의 무관심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총학생회와 학생들간의 의사소통 부족, 총학생회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 학생들이 26%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60% 달하는 학생들이 완전 불참한다고 응답해 총학생회가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처럼 학생들이 총학생회 주최 행사를 불참하는 이유로는 개인 일정과 겹쳐서 21%, 재미가 없기 때문에 등 5가지 항목이 비슷한 응답율을 보였다.

한편,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회비와 관련해 31% 학생이 학생회비 납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20% 학생이 긍정적, 6%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28%, 무척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도 14%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학생회비 납부에 부정적인 이유는, 총학생회의 사용내역을 잘 몰라서라고 답한 학생이 6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총학생회의 활동내용이 불만족스러워서라고 답한 학생도 31%를 기록했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총알처럼 달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구본훈·국교4)가 지난 28일 백상마라톤을 진행했다. 마라톤은 7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10km구간을 완주하는 것이다. 위 사진은 팔정도에서 출발하는 모습이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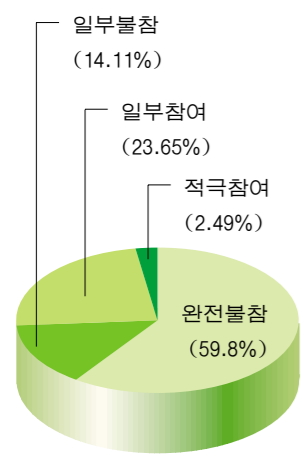
이사회, 오는 6일 열려 이사임기 만료전 의 논의

제212회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가 오는 6일 오전 11시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임상교원 신규임용 △경주캠퍼스 교원 면직 △기본재산 관련 사항 등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며 오는 11월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영배스님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법인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종립학교법에 따라 이사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종립학교위원회에서 이사 후보 2인을 추천해야 하는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추천된 후보가 아직 없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덕화 동문 외 20명 명예홍보대사 위촉

우리학교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이 오는 5일 분관 4층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명예홍보대사로 우리학교 출신 연예인 동문인 이덕화(연영 11기), 최민식(연영 89졸), 박신양(연영 92졸), 채시라(연영 92졸), 고형정(연영 94졸), 문정혁(연영 04졸), 김소연(연영 04) 외 20명이 선정됐다. 명예홍보대사는 앞으로 우리학교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발전기금 모금행사에도 참여하게 된다.

2. 총학생회 주최 행사에 얼마나 참여합니까?



영어공부 제대로 알고 하자

1. 대학생 영어공부 실태 분석 2. 대학 영어교육 분석

언제부터인가 영어교육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도, 취업을 할 때에도 영어를 평가하게 되고 영어를 못한다면 골치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에 대학도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강좌가 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의 국제교육원(원장=김영민·영어영문학)은 영어 패스제, 코필과목인 실용영어와 영어회화 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질 높은 교육을 위해 외부 업체를 선정해 학내에서 선택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주 2시간 수업 ... 세계화 시대에 맞는 교육 필요

하지만 학생들은 이 강좌에서 큰 학습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회화는 1주일에 2시간을 30명 이상의 학생들이 한 반에 앉아 진행된다. 강의는 원어민 강사가 말을 하면 학생들끼리 이를 응용한 대화를 하는 수준이다. 또한 실용영어도 마찬가지로 1주일에 2시간동안 교재위주의 독해와 듣기를 병행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업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와 관련해 실용영어2를 강의하는 정은길 외래교수는 “독해와 듣기를 분리해 전문적인 교육이 학생들에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다른 대학들이 세계화 시대에 맞춰 영어강의에 대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어영문학과와 황훈성교수는 “세계화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려면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영어능력을 키워야 하며 일정장의를 교양필수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를 보면 지난해 교양교육이 개편되면서 실용영어 수업교재가 단과대별로 달라졌다. 원어민 강사가 전공분야에 관련한 영어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전체 강좌 중에서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좌가 30.24%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한창희(고려대 일문2)교수는 “원어강좌라서 수업준비와 복습 등 정신없이 힘들지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외에도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을 접할 수 있는 대학도 있

다. 연세대는 지난해부터 ‘글로벌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라운지는 230여평의 공간에 회의실, 시청각실, 휴게공간, 카페 등이 마련돼 있으며 이곳에서는 영어만을 사용해야한다. 5,000명의 외국인학생들이 있는 만큼 외국 문화를 몸소 체험하고 손쉽게 언어교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전유환(연세대 경제2)교수는 “회의실에서 영어 스타디움 자주한다”며 “이곳에서 우리말을 사용하면 눈치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제교육원 김영민 원장은 “현재 우리학교도 실용영어와 영어회화 교육과정을 개편하기위해 연구중이다”고 말했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동국인들의 성공염원 담은 병원 개원

양·한방 협진체제 갖춘 최대규모 ‘동국대학교병원 + 한방병원’

우리학교 구성원들과 2,000만 불자의 염원을 담아 지어진 동국대병원+한방병원 개원식이 지난 27일 오전 10시 병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개원식은 각계각층 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 △의무원장 식사 △총장 격려사 △이사장 치사 △내빈축사 순으로 치러졌다.

홍기삼(국어국문학) 총장은 이 자리에서 “병원을 세우는 데 기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동국대병원+한방병원은 무엇보다도 세계적 의료수준을 가지고 있는 명의를과 최첨단 기자재를 구비한 병원이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무엇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통

해 병원으로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고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내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본산인 동국대학교의 위상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축사를 전했다.

개원식 후 병원 현관에서 개원테이브 커팅식이 있었으며 병원 주요시설 관람행사가 이어졌다.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은 연건평 2만 8,000평에 총 1,000개 병상의 규모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양방(800병상)과 한방(200병상) 병원을 모두 갖추고 있다. 또한 전국규모의

대학병원로는 최초로 전혁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의료 정보가 기록되는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ing)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편 동국대학교병원+한방병원은 지난 29일부터 불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원기념 건강강좌와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칭찬합니다

우리 신문은 건학 100주년을 맞아 동국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내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칭찬합니다'를 기획 연재한다.

⑬ 희망을 주고 행복을 얻는 박상민(법2)군



마법은 마법사만이 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지팡이 삼아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 '칭찬합니다' 13번째 주인공인 박상민(법2)군을 만나 그에게 '희망을 만드는 마법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일이 제게 배우는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가 봉사활동을 계속하는 가장 큰 이유죠.”라며 마법의 비법을 공개하는 그는, 그는 자신에게 배우면서 꿈을 꾸고 희망을 갖게되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도 함께 꿈꾸고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장애우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번에는 그가 마법에 걸렸던 이야기를 꺼내 놓는다.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바로 지난 여름방학 봉사활동 중에 보았던 장애우들의 휠체어 공연 연습 장면이다. “손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장애우가 발가락에 물집이 생길 정도로 연습하면서도 끝까지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쉽게 지치고 힘들어했던 내 모습이 떠올랐고 그동안의 행동들을 깊이 반성했죠.” 이번에는 장애우들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지팡이 삼아 그에게 ‘행복’을 선물한 것이다.

그가 만든 희망은 다시 그에게 행복으로 돌아왔다. 그 뿐만 아니라 동국 구성원 모두가 희망과 행복을 주고 받으며 함께 사는 내일을 만들어 가길 기대해본다.

(해)
iamjh713@dongguk.edu

동대신문 기획광고

아시나요?
즐겁게 공부하고
장학금이 보인다는 사실!

제43회 동대 학술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사회과학상, 자연과학상
2. 응모요령 : 3개 분야 모두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3. 시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100만원, 가작 1명 50만원
4.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5. 제출 : 10월 24일(월)~11월 11일(금)까지 방문·직접·우편 접수
6. 입상발표 : 2005년 12월 5일자 동대신문(예정)
7. 문의 : 02) 2260-3491~2

제20회 동대 문학상 작품 모집

1. 모집분야 : 시부, 소설부, 희곡·시나리오부
2. 응모요령 : 시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희곡·시나리오부문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3. 시상 : 각 분야별 장원 1명 50만원, 가작 1명 30만원
4.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5. 제출 : 10월 24일(월)~11월 11일(금)까지 방문·직접·우편 접수
6. 입상발표 : 2005년 12월 5일자 동대신문(예정)
7. 문의 : 02) 2260-3491~2

대학평가 이대로 괜찮은가

②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고등교육평가원 찬반의견 팽팽

대학특성 고려해 기존 평가의 문제점 해결기대

국가지원사업과 연계돼 대학 자율성 해칠 우려

지난 27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학평가 전담기구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에 관한 고등교육평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부가 밝힌 계획대로 다음해 상반기에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된다면 기존 대학평가 시스템에 일어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대학 평가가 아닌 지원을 전제로 대학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학 평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교육인적자부가 밝힌 계획대로 다음해 상반기에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된다면 기존 대학평가 시스템에 일어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부의 황성환 사무관은 "한국고등교육평가원과 다른 민간 평가기가 경쟁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부는 한국고등교육평가원에서 대학 유형과 규모별 평가로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는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대학별 특성에 맞는 몇

개의 평가안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실시했던 대학종합평가에서 대학을 정성평가 중심으로 판단하거나, 중앙일보가 모든 대학을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해 비판받아 왔던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이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지 않고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같은 기존의 평가기구를 개선하면 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인적자부의 황성환 사무관은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은 교육부와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될 계획"이라며 "교육·경제·사회의 민간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이며 대학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학평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 서열화를 부추기는 순위매기기에 치중하는 대학평가 아닌 지원을 전제로 대학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평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학교와 부서 목표 연계성 평가 긍정적

부서간 업무 특성 고려한 기관평가제도 마련돼야

학교경영방침과 각 단위 부서 목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존 기관평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관평가제도 개선 연구(안) 공청회가 지난달 28일 만해관 모의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기관평가제도 개선 연구(안)에서는 부서별 성과과제 수행이 학교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다.

즉, 학교와 부서간 유기적 관계가 중요해진 것이다. 기존의 기관평가제도는 2000년부터 진행돼 왔지만 학교의 전략적 목표와 각 부서의 어긋난 목표설정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와 발전이 없었던 것으로 지적받았다.

따라서 심사평가팀에서는 내년 평가 시행부터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과관리시스템이란 그동안 목표 대비 결과만을 평가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간과정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부서의 제출 자료를 평가해 결과를 발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점과 강점, 보완점을 지적하고 이를 다시 개인에게 피드백해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여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기관평가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고, 피평가기관 담당자가 평가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해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기관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평가 결과를 개인 인사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변경된 기관평가제도는 그 결과가 개인 인사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높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변경된 기관평가제도가 얼마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부서가 있기도 하지만 업

무내용에 따라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서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팀의 박정순 과장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1, 2년 간 시뮬레이션 기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며 "올해 기관평가결과는 개인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이 제시된 기관평가 개선 연구(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직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개선 연구(안)은 지극히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부분일 뿐"이라며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관평가제도 개선 연구(안)에 맞는 인력배치 등의 인사제도와 효과적인 업무 진행을 위한 예산지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nanamk@dongguk.edu



책속으로 '홈백' ... 지난달 29일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독서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소설 '무정'을 주제로 장영우(문예창작학) 교수와 학생들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동국해외탐방 보고회 심사결과 발표

포토그래프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

지난 17일 진행된 '동국해외탐방' 보고회 심사결과 우수 3팀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팀은 △그리드 컴퓨팅의 동국대 활용방안 모색=김현아(정보관리3), 오선미(정보관리3), 김민정(정보관리3)팀 △The six sense of food science sensory evaluation=신희정(식품공4), 조은경(식품공4), 홍정선(식품공4)팀 △생태공원 및 도심녹지를 통한 자연

환경의 보존과 산업도시와의 조화=권오정(식물자원4), 윤유미(산림자원3), 조혜련(산림자원3)팀이며 상금으로 이번 학기 등록금 30%를 감면받는다.

동국해외탐방은 우리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양질의 현장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매년 일정 인원의 재학생을 선발해 해외 탐방비를 지원 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 동국해외

탐방 장학생 선발은 내년 3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23일까지 만해관 1층에서 진행된 '해외탐방 사진전' 심사결과 포토그래프상으로 2팀이 선정됐다.

포토그래프상 2팀은 △미국대학의 NASA연구프로그램 및 관련교육의 탐방 및 체험=박정우(기계공4), 민재경(전자공4), 최원철(전자공4)팀,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보존의 중요성과 필요성=홍지선(생물2), 박진호(생물2), 김호경(생물2)팀이다. 포토그래프상을 받은 2팀에게는 팀당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Scopus 논문 검색엔진 시범사용

우리학교 학생들이 다음해 8월 31일까지 Scopus 논문 검색엔진을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도서관(관장=정진환·교육학)이 밝혔다. Scopus는 1만 2000여종의 논문과 1억 6,700만개의 웹 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www.scopus.com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는 Scopus측이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학내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이 검색엔진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이 다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논문마다 피인용 횟수를 표시해주고 찾는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됐을 때 전자우편으로 알려주는 알람 서비스 등 Scopus만의 특색 있는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는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교수법 세미나 개최

교수학습 개발센터가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교수법에 관한 강연회를 실시한다. 선진 대학의 교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Geistfeld 교수를 초청한 강연회가 2시간동안 교수학습개발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한편, 교수학습 개발센터가 본관에서 중앙도서관(중앙도서관 출입구 좌측)으로 이전했다. 이로써 교수학습 개발센터는 멀티미디어실이 이용이 편리해졌고 세미나실을 확보하게 됐다.

회전무대

성적세탁

○...우리학교 재수강제도는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라는데, 알아본즉 다른 학교는 재수강 가능학점이 제한돼 있어 재수강 남발을 방지하는 반면 우리학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학생들이 재수강 제도를 믿고 수업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재수강 기준을 정해야지 않을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재수강, 무한리플 가능합니다.(?!)"

자넨 누군가

○...교수들이 수업시간마다 난감함을 겪는다는데, 무슨 말이고 하니, 출석부 사진이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포토샵처리가 돼있거나 심지어 옆모습을 찍은 사진들도 있어 학생의 얼굴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출석부에 기재되는 사진이니 만큼 최소한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에 출석부 앞에 써있는 한마디. "본 사진은 실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애물단지

○...우리학교 캠퍼스는 오토바이이여겐 지상낙원이라는데, 이유인 즉, 승용차와는 달리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동국인에게는 주차비를 받지 않고 학내 오토바이 운행 속도나 주차공간을 제한하는 제도조차 없다고.

교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 주차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헬멧착용, 속도제한을 규제하는 벌점제도 등의 규칙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에 주차요원 왓. "오토바이는 교통법규상 면제(?!)"

숨은 학과 찾기

○...최근 몇몇 학과가 우리학교에 개설된 학과가 아니었음이 '홈페이지'를 통해 드러났는데, 이 유인즉 각 학과를 소개하는 웹 페이지에 일부 학과 홈페이지가 없어 해당 학과의 상세한 정보를 알 길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학교를 지망하는 수험생들과 학과를 고민하는 1학년 학부생들을 위해 각 학과에서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교수진 등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학과 홈페이지를 개설해 관리해야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우리학교 일부 학과들, '동수네' 대학으로 소속 변경(?!)"

동국 락뮤직 동영상 시사회

DGU Power Live

학내 구성원들과 락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상영하는 "라이브 공연실황"을 매주 화요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0월 4일(화) : 상연없음(피어리스턴 공연 대체) Stimpack For You / 학림관스강당 오후 6시
- 제5회 : 10월 11일(화) 오후 6:00 / 중앙도서관 A/V실 브리티쉬 히드락 특집 / Deep purple/ Led zeppelin
- 제6회 : 10월 18일(화) 오후 6:00 / 중앙도서관 A/V실 브릿팝 특집 / Radiohead / Oasis / Blur
- 제7회 : 10월 25일(화) 오후 6:00 동국락페스티벌 2005 "WISH YOU ARE HERE" 동영상 및 미공개 영상

주최 : 동국락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주관 : 락동아리 피어리스턴

수요일, 동국은 음악에 젖는다...

동국인의 감성지수를 높이기 위해 동국사랑 수요음악회를 엮는다. 즐거움이 가득한 캠퍼스에 홈백 빠져봅시다!!

2005학년도 2학기 동국사랑 수요음악회

10월 12일(수) 12:00 중앙도서관

◆ 첼로로 듣는 영화음악 ◆

첼로 : 홍지영
줄리아드 예비학교, 줄리아드 음대, 예일대 대학원 졸업
삼성노블카운티 음악영재 예비학교 총감독

피아노 : 드미트리 코스마체프 (Dmitri Kosmachev)
러시아 모스크바 음악원 졸업, 모스크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솔리스트
현 수원대학교 음대 교수

프로그램
비발디 - 겨울 하이든 - 세레나데 Gabriel's oboe Irlandaise Por Una Cabeza Moon River My Way Yesterday 지붕 위의 바이올린 백조 Memory

동국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OPUS
바이올린 : 김혜선(멀티미디어2), 김남운(가정교육2), 한송이(멀티미디어1), 김민재(전기공1)
콘트라베이스 : 홍윤기(전기공2)
플룻 : 김지현(영성3)

주최 : 중앙도서관, 교육방송국, 동대신문사, 학생복지실

건학 100주년 D-200기념 가을의 유혹 Big 2

- 제1회 목매가요제
일정 : 10월 5일(수) 늦은 6시
사회 : 노현정 아나운서(KBS), 김경근 아나운서(MBC)
초대 : 빙마마
출연 : 본선 진출 12개팀
※ 대상수상자에게 한국연예협회 가수 인증서 발급
- 백상응원 FESTIVAL
일정 : 10월 6일(목) 늦은 6시
사회 : 김신영, 김태현(웃찾사 행남아팀)
초대 : 에이, 아이비, 유진박
출연 : 백상응원단 등

장소 : 대운동장 특설무대
기간 : 10월 5(수) ~ 6(목)

후원 : 100주년 기념사업본부, 교육방송국, 동대신문사, 학생복지실

※ 양일간 관람하는 선착순 3000명에게 100주년 기념품이 지급됩니다.

10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0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도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
- 일정
가. 제4회 독서토론
일시 : 10월10일(월) 오후3시-5시
장소 : 중앙도서관 자연과학실(1층) 세미나실
진행 : 영화영상학과 조중훈교수
선정도서 : 한국영화 예술리더를 만나다 / 유지나, 조중훈 외 지음, 생각의나무
정원 : 10명
나. 제5회 독서토론
일시 : 10월 20일(목) 오후4시-6시
장소 : 중앙도서관 자연과학실(1층) 세미나실
진행 : 문예창작학과 정영우교수
선정도서 : 손님 / 황석영, 장지락비평사 2003
정원 : 10명
-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자료)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할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97년부터 불기 시작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사립대학으로서 이와 무관할 수 없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논란의 주요 골자와 이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부당운영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해

사립대학 당국의 자정적 노력 함께 이뤄져야

여야의 줄다리기로 1년여를 끌고 있는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역시 불투명해지면서 교육계 인사들의 강력한 항의가 빚발치고 있다.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사학법 개정은 필수라고 주장하는 열린우리당과, 개정안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치권의 대립과 함께 강력히 개정을 주장하는 교수, 시민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사립대학법인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립대학의 횡령과 부당운영으로 총 649억 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히 법적 조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전국 사립대학의 54.7% 대학이 현재까지 단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경험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일부 교육계는 사립학교들의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만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 감시의 망을 확립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구성원 합의 vs 사학의 자율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학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여부이다. 그동안의 사립대학

이사회는 독립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이 비리의 원인이 되었던 점을 감안해 교수, 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 등을 공의 이사로 위촉하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일부 사학 단체들은 외부 인사를 투입하는 것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전국 272명의 사립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 신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가량의 교수들이 개방형 이사제 도입 여부에 찬성 하되, 일부 우려를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성균관대 김형수 교수는 "외부 이사의 도입으로 이사회 구성원 간의 의견 대립으로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 마련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양 측이 맞서고 있는 또 하나

의 쟁점은 대학 운영위원회, 혹은 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하자는 안이다. 이사회의 집행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교수, 직원, 학의 인사 등으로 이루어진 대학평의원회를 학교 예·결산 등의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학교법인 이사회 외에 별도로 이사장직수의 2배 이상의 교직원, 동문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를 두고 이들이 예산 등에 대해 심의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이 현재 주장하는 대로 평의원회가 자문기구로만 그칠 시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유명무실한 기구로만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계의 반응 팽팽히 맞서

이처럼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개정의 열쇠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상정 여부를 놓고 다시 불붙기 시작하고 있다. 사립대학과 직, 간접적 관련이 있는 각 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에는 사학법 개정을 주장하는 교수단체와 학생,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더해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의장 사무실 앞에서 사학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규모 농성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개정을 반대하는 사학법인 측 역시 법안의 개정 없이 자정의 노력을 통해 투명한 운영을 하겠다는 결의를 하며 사학법 개정 반대 결의문을 발표하며 개정 저지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뿐만 아니라 교육계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10월에 있는 정기국회에서 역시 개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의장 역시 직권 상정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해를 또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측 역시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립대학의 불투명한 운영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안의 개정과 더불어, 그동안 비리의 온상이라는 '명예'를 안고 있던 사립대학 법인들 역시 자정적인 반성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때이다.

김지은 기자
bat83@dongguk.edu

사설

학생회의 '부활' 을 바란다

우리 신문은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비례 추출로 240여명을 설문조사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학생들(77%)이 총학생회(이하 총학)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회가 필요 없다고 답한 사람은 소수(6%)에 불과했다. '나의주장'의 맹목적 비난과 학생회비 환불문제 그리고 침체된 학생회를 보면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을 줄 알았던 총학이었다. 괜한 걱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총학 활동에 '불만족'을 나타냈다. 학생들은 총학의 가장 우선시해야하는 역할로 △등록금 투쟁 등 학교주요정책에 의견 반영(36%) △복지문제 해결을 대학 당국에 요구(31%) △취업·영여 관련 강좌 개설이나 문화사업 제공(17%)이라고 응답했다. 그동안 총학은 이 사안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제기된다.

반면, 정치·사회 사안에 입장을 표명하고 홍보하는 부분은 2%에 불과했으며 총학이 한총련 가입에 관련된 문제는 절반정도가 관심 없어했다. 그리고 비슷한 찬반 양상을 보였다. 다음 총학은 정치·사회문제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의견을 대변하고 복지문제 개선에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도 원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은 학생회비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신뢰부족이었다. 학생회 사업에 불만족을 느끼는 것은 주요 문제점이 아니었다. 학생들의 62%가 사용내역을 잘 몰라서라는 의견이었다. 선거철마다 학생회 사람들의 선거운동용 '겨울집퍼'를 가지고 불만을 품는 학생들이 많은 것도 위의 문제점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총학은 앞으로 학생회비 내역을 투명화하고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제 총학생회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학생들은 수동적이었다. 학교의 주체가 아닌 객체가 돼서 지냈다. 학교는 부족함 없이 학생들의 웃을 만들고, 학생은 그 웃을 입었다. 큰 불편함은 없었다. 하지만 학생은 학교의 주체임을 망각하면 안 된다. 의견을 반영해 우리가 원하고 꼭 맞는 웃을 입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총학후보가 올바른 재봉사 역할을 해서 붕괴된 총학이 다시 '부활'하기를 기대해본다.

동국만평 동국만평

정명근 gmgce@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홍기삼	인터넷 동대신문	http://www.dgupress.com
편집인 겸 주간	윤재웅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간	김세균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국장	정경훈		
편집장	황주상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공익이사제도' 개정 논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민주적 제도의 개정이 필요한 때이다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교수노조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17일 동안 전국교수 1000km 대장정을 하였다.

대형트럭이 달리는 도로의 갓길을 걷는 위험한 행군에, 연구와 강의에 전념해야 할 1,000여 명의 교수가 참가했다. 이는 대학교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여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대학교육이 바로 설 수 없고, 대학교육을 바로 세우려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이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4대 개혁입법 중에서도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작년 말 정기국회에서도, 올 6월 국회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는 '공익이사제도'가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사학법인협의회는 이사 정수의 1/3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법인과

교직원 간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라고 비교를 하면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1/3을 학교구성원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학교법인의 이사로서 경영권을 공유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는 경영권 침해이며 건학정신 실현이 불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사회화를 부추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학교법인의 재산 및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잘못 인식한 데서 비롯된 주장이고 생각한다.

학교법인의 재산에는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 이외에 학교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공적 자금, 즉 학생 납입금 및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으로 취득한 교지, 교사, 실습실,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등 교육용재산도 포함되어 있다. 학교법인의 연혁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설립자의 출연 재산보다도 설립 이후에 공적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훨씬 많은 학교법인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재산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뿐만 아니라 설립자와 공적 자금을 출연한 학생 납입금, 국고 보조금, 기부금 출연자 등이 공동으로 출연한 재산'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법인의 재산은 교육의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비영리 법인의 재산'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본다.

또한 법인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도 안 되는 이사 정수의 1/3을 공익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공공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의미를 애써 외면하면서 이를 '사유재산권 탈취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자주성을 앞세워 사립학교를 학교법인의 재산이 아니라 설립자나 이사장 개인의 재산으로 인식한 발상에서 비롯된 그릇된 주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여 교육을 살리기 위해 한 마음으로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동참하길 바라는 바이다.

이 화 영

전국교수노조 부위원장, 서일대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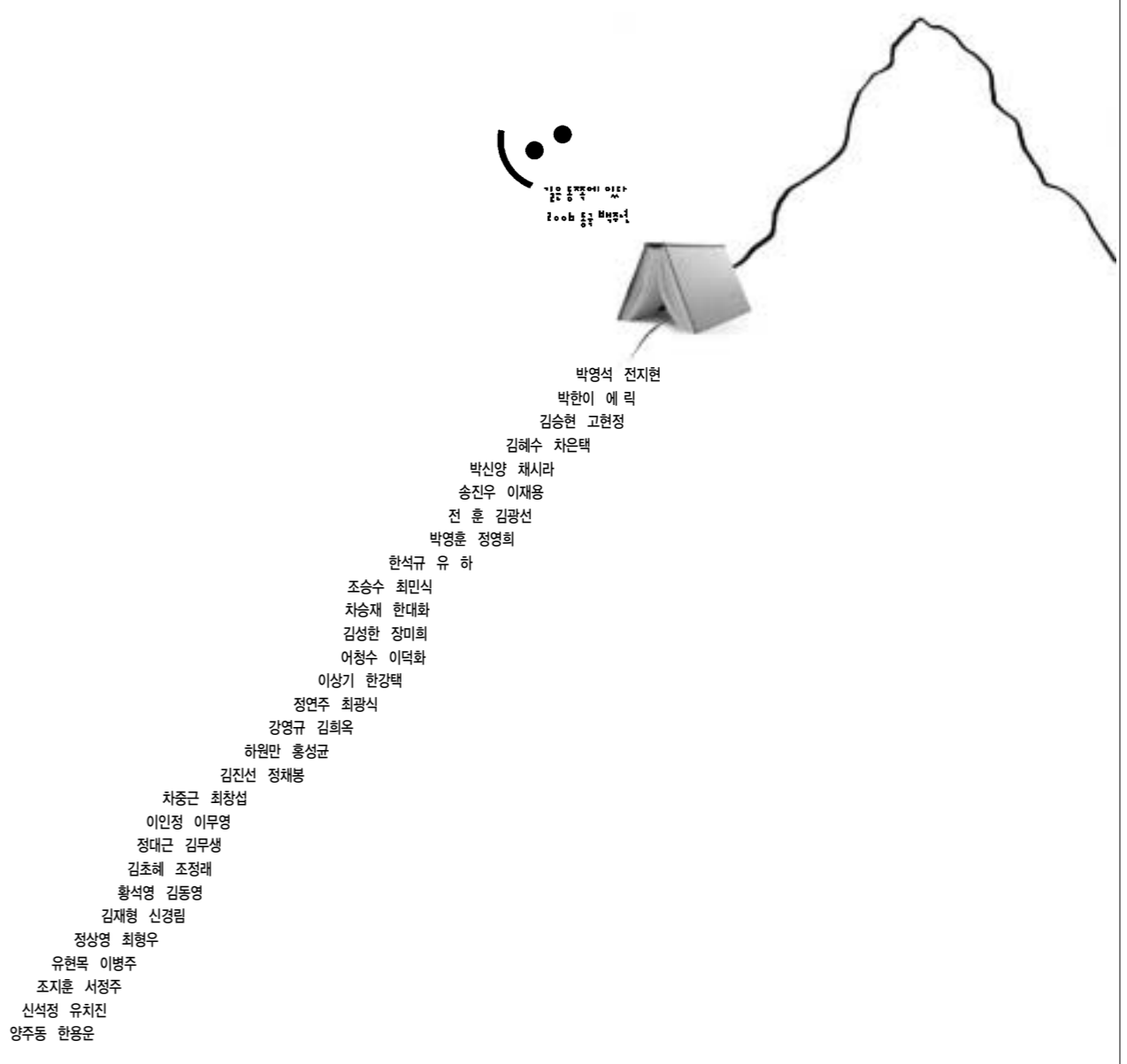
다시 쓰는 100年新화

100년 전 ... 이 땅에 대학교육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0년 후 ... 한 걸음 한 걸음 어둠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20년 후 ... 끊임없는 도전으로 변화를 이겨냈습니다.
동국 100주년 ... 이제 정상을 향해 더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
새로운 100년 ... 당신의 이름으로, 세계정상에 오르십시오!

글로벌 베이스캠프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동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2006학년도 전기(특별전형)

모집학과 석·박사과정 및 학과간 협동과정	원서접수 가. 인터넷접수: 2005.9.30(금) ~ 10. 5(수) 17:00시 까지 나. 방문접수: 2005.10. 4(화) ~ 10. 7(금) 17:00시 까지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www.dongguk.edu/gs TEL: 02-2260-3094~5,3116 FAX: 02-2260-3685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미술학과·면접시 포트폴리오 지참)	전형일시 2005. 10. 15(토)	
	합격자발표 2005. 10. 28(금) 14:00 예정	



우리 신문은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남·북한 언어 차이의 실태와 그 심각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더해 이러한 현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함께 짚어 보았다. 편집자

체제 요인으로 달라진 남북 언어

언어관 · 사회제도 · 어문 규범 차이가 이질감 가져와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 체제로 말미암아 말이 달라진 원인을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언어관의 차이

언어를 보는 관점은 언어 도구관, 언어사상 일체관, 언어사상 형성관의 세 가지가 있다. 언어 도구관은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것이고, 언어사상 일체관은 언어가 의미를 낳고 의미가 사 고의 모습을 이룬다는 견해이다. 언어사상 형성관은 사고가 언어에서 형성된다는 견해이다. 이 가운데서 유일론적 언어관으로서의 언어 도구관은 언어는 편의적인 도구인데 북한의 경우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현대조선말사전(1968), 조선문화어사전(1973)) 북한 방송언어가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은 언어라는 도구 범을 작위적으로 조작하기 때문이다. 잦은 어문 규범 개정과 지나친 말다듬기(스포츠크용어에서는 원어 회귀 경향)에 따른 남북 언어 차이는 북한의 언어 도구관과 관련이 있다.

▲ 사회제도의 차이

남북한은 1945년 이후 60년을 체제를 달리하여 살아왔다. 북한에서는 그쪽 사회 구조와 가치관에 맞는 어휘가 생겨났고 의미가 생겨났다. '세포', '어버이', '종자'가 북한에서 각각 '당의 기본 조직', '김일성 주석을 가리키는 말', '문에 작품의 사상적 알맹이'라는 뜻을 갖는 것은 원뜻에 그쪽 체제에 맞게 의미가 덧붙은 결과이다. 그런가 하면

'가두녀성'(직업 없는 전업 주부), '가정혁명화'(가정을 혁명가 집단으로 만들), '동요분자'(사상이나 입장이 확고하지 못하여 흔들리는 사람), '륙륙날 개랑'(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때의 메주리 요리), '평양속도'(평양시를 건설하는 데서 창조된 빠른 건설 속도) 등은 남한에 없는 어휘로서 북한의 특수 체제가 만들어낸 어휘이다. 한편, '경조사, 고액 과의, 공공요금, 탈동네, 비자금, 새내기, 연봉, 자판기, 주말농장, 특자모집, 효도관광, 개런티, 노하우, 마케팅, 베겐 세일, 베스트셀러, 카풀, 코스닥, 팀' 등은 남한 체제의 산물로 북한에서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 어문 규범의 차이

북한에서의 언어는 도구이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자주 개조할 수가 있다. 우리는 1933년의 어문 규범을 대체로 그대로 지켜오다가 1988년에 개정하는 등 어문 규범 개정을 신중히 처리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조선어신철자법'(1948), '조선어철자법'(1954), '조선말규정집'(1966), '조선말 새규정집'(1987) 등 규범을 여러 차례 바꾸었다. 남북에서 문어의 표기가 달라지게 된 것은 1948년의 '조선어철자법'부터이다. 여기에서 이미 두음법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되어'는 '되여', '개어'는 '개어'로 바뀌었다. 오늘날에는 어문 규범에서 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 두음법칙의 적용 여부(노인:로인, 이발:리발), 사이시옷의 표기 여부(넷가:내가, 뱃길:배길) 등 맞춤법 부분과 띄어

쓰기(두 개:두개, 먹는 것:먹는것), 문장 부호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문 규범의 차이는 특히 문어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요소로 작용한다.

국립국어원은 앞으로 북한의 언어학연구소를 상대로 일부 훼손된 민족어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전 수 태
국립국어원 어문실태부 학예연구관



남북한 말의 차이는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을 만큼 큰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북쪽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사실이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매년 북한 학자들을 만나고 있다. 그리고 서로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북쪽 사람들도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인 산물로서의 체제 차이로 서울 '표준어'와 북한 '문화어' 사이에는 체제적 요인만큼의 차이가



일러스트=〈현〉

겨레말 큰사전 편찬으로 극복기대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게 된 지 반 세기가 지났다. 역사에서 50년은 그리 긴 동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성 자료를 통해 1950년대의 서울말과 현재의 서울말을 비교해 보면 말소리와 운율 체계, 어휘 등에서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50년동안 서로 언어 교류를 하지 못한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어떻게 됐는가.

서울말의 변천이 시간에 따른 점진적인 언어 변화의 결과라면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남북한 언어 차이는 분단으로 인한 공간적 분리, 시간의 흐름, 체제의 차이, 언어 정책 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남북의 언어 차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라는 현실로 드러난다. 탈북 주민들은 '공편(公篇)'나 '공천(公薦)'과 같은 남한의 외래어, 한자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면, 남한 사람들은 '선군정치, 원수' 같은 정치적 단어나 '곰열, 손기척, 살결물' 등의 다듬은 말을 낯설게 느낀다.

그러면 이러한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 시간은 불가역적인 요소이고, 체제의 차이 역시 당장 해결 방법을 찾기는 요원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꾸준한 교류를 통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언어 정책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실제로 남북한 언어학자들은 학술적으로 꾸준한 교류를 계속하고 있으며 언어 정책 부문에서는 어문 규범을 통합하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예를 들면, 2001년 베이징에서는 남한의 국어 순화회와 북한의 말다듬기 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자료집을 펴냈으며, 2003년부터는 남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방언 조사 사업을 벌여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또 남북한의 어문 규범 통합을 염두에 두고 국어순화 자료, 말뭉치 자료, 방언 자료, 어문 규범 자료 등을 활발히 교환하고 있다.

광복 60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한 언어 차이를 넘어 우리 민족어의 장래와 관련하여 주목할 일이 있으니 바로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이다. 이 사전의 편찬은 고 김일성 주석과 문익환 목사의 합의에 뿌리를 둔 것인데, 2005년 2월에 이 사전의 편찬을 위한 공동편찬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8월에는 사전 편찬요강이 확정된 상태이다. 이 사전은 남북한 공동취재를 중심으로 30만 어휘 규모로 편찬되는데 종이사전에 외에 전자사전으로도 출간될 예정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차 재 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참치' 보다 '꽁치'가 뒤에 나오는 북한 국어사전

남북 한글 배열 순서 달라 ... 지속적인 합의작업 필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를 코드라고 한다. 한국이나 북한이나 한글을 컴퓨터에서 표현하려면 한글 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한글 코드에는 자판 코드로 불리는 입력 코드, 컴퓨터 내부에서 사용되는 처리코드, 모니터나 프린터에 사용되는 출력 코드가 있다. 출력 코드에는 인쇄산업과 출판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활자용 코드(폰트 코드)와 정보교환용 코드가 있다.

▲ 한국과 북한의 한글 코드

국제표준기구(ISO)의 기준에 따른 한글 코드에는 ISO-2022 규격에 맞춘 KSC5601-87 규격과 KSC5601-92 규격이 있다. KSC5601-87은 완성형 코드로 한글 완성자 2350자를 표현할 수 있으며, KSC5601-92는 조합형 코드로 한글 1만 1172자를 표현할 수 있다. ISO-10646 규격에 맞춘 한글 코드는 KSC5700-95 규격이 있는데, 한글 1만 1172자를 표현할 수 있고, 240개의 자소에도 코드를 부여하여 옛 한글까지 표현할 수 있다.

입력 코드는 컴퓨터 자판의 글쇠(키)에 따라 부여되는데, 이때 한글 자음과 모음의 배열 순서에 따라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로 입력된 입력 코드

가 처리 코드로 변환되는 방식이 다르게 된다. 남과 북의 컴퓨터 자판 배열이 다른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자음과 모음의 배열 순서가 다르므로, 같은 한글이라도 한국과 북한과 조선족의 한글 처리 코드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은 자음의 배열 순서를 'ㄱ ㅋ ㆁ ㄷ ㅌ ㅇ ㄹ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ㅍ ㅑ ㅓ ㅕ ㅗ ㅛ ㅛ ㅜ ㅠ ㅡ ㅟ ㅠ'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다. 쌍자음의 배열 순서와 초성의 ㅇ과 받침의 ㅡ을 구분하여 배열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 모음의 배열은 한국이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ㅠ'의 순서이고, 북한과 중국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ㅟ ㅠ'의 순서이다.

1996년 8월에 중국 김립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연지)에서 열렸던 '96 코리아 컴퓨터처리 국제 학술대회에서 한국, 북한, 중국의 조선족 학자들이 합의한 우리 글자 배열 순서에 따르면 자음은 'ㄱ, ㅋ, ㆁ, ㄷ, ㅌ, ㅇ, ㄹ, ㅂ, ㅃ, ㅅ, ㅆ, ㅇ, ㅈ, ㅊ, ㅍ, ㅑ, ㅓ, ㅕ, ㅗ, ㅛ, ㅛ, ㅜ, ㅠ, ㅡ, ㅟ, ㅠ'의 순서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의 강제성이 없어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글 음절은 한글 출력 코드에 의해 글꼴 모양이 결정된다. 또, 이 한글 출력 코드는 한글 처리 코드에 의해 제한되므로 한글 출력 코드와 한글 처리 코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글 활자(폰트)에 관하여 2005년 8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다국어정보처리학회(ICMIP_2005)에서 만난 북측의 양성진 실장과 한글 조합 알고리즘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고품위 한글 글꼴 조합을 위하여는 오정근조합형(1858자소)이 적당하다는 결론에 접근하였다.

▲ 남과 북의 한글 용어 표기 통일

1996년 연변 국제학술회의에서 남과 북은 컴퓨터 용어를 우선 통일하기로 합의하고, 컴퓨터 용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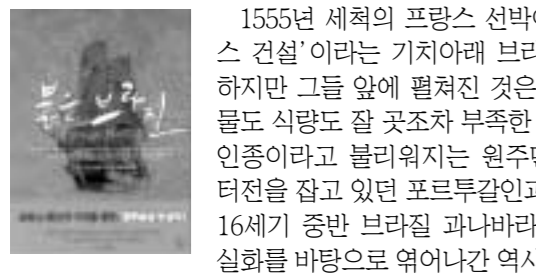
중 디스크는 저장관, 컴퓨터는 전자계산기와 컴퓨터 복수 표준, 하드웨어는 기계장치,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기술 등 대부분의 컴퓨터 용어를 표준화 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물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컴퓨터 용어 사전을 출판한바 있다. 단 두음 법칙(둥구/능구, 리발/이발) 등은 남과 북이 각기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아쉽다.

2005년 하얼빈 학술회의(ICMIP_2005)에서는 한국과 북한 주민에게 영향력이 큰 베이징 올림픽 중계 방송 때부터 남과 북이 통일된 체육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키로 하여 문지기(문키), 구석차기(코너), 반칙(파울) 등 기존 남측에서 발행된 체육 용어 사전에 기록된 용어와 북측에서 사용하는 체육 용어를 비교 분석하고 토론하였다. 그러나 민족통일의 초석인 국어대사전은 '겨레말 큰사전'이란 명칭으로 남측과 북측의 정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넘기기로 하고, 본 하얼빈 학술회의에서는 기존의 컴퓨터 용어와 체육 용어에 한정하여 용어 통일 작업을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기 성
계원초등학교 교수, 한국콘텐츠출판학회 회장

중영도서관 신작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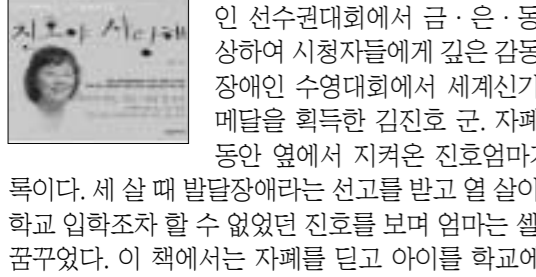
붉은 브라질 장 크리스토프 뤼팽 지음 / 이원희 옮김, 작가정신, 2005



1555년 세력의 프랑스 선박이 '남국의 프랑스 건설'이라는 기치아래 브라질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원시적인 정글, 물도 식량도 잘 갖춰져 부족한 척박한 환경, 식인종이라고 불리워지는 원주민, 그리고 먼저 터전을 잡은 포르투갈인과의 갈등이었다. 16세기 중반 브라질 과나바라 만에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엮어나간 역사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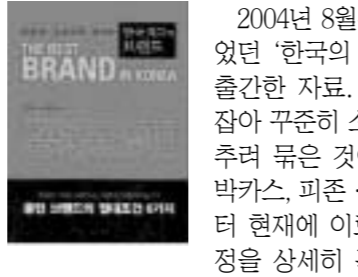
긴장과 공포, 광기와 잔학으로 점철된 피의 역사로 프랑스가 있고 싶어 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모험소설로 역사의 수면위로 떠오르게 하였다. 열강의 식민지 침략, 원주민에 대한 잔혹행위, 구교와 신교간의 종교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2001년 프랑스 콩쿠르상 수상작품.

진호야 사랑해 윤희경 지음 / 한스미디어,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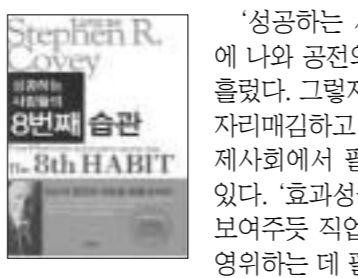
수영계의 '말아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김진호 군은 얼마전 MBC TV '진호야 사랑해' 코너의 주인공으로 9월8일 체코에서 열린 장애인 선수권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각각 수상하여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획득한 김진호 군. 차폐와 싸워온 세월 동안 옆에서 지켜온 진호엄마가 쓴 감동의 기록이다. 세 살 때 발달장애라는 선고를 받고 열살이 다 되도록 초등 학교 입학조차 할 수 없었던 진호를 보며 엄마는 셀 수 없이 자살을 꿈꾸었다. 이 책에서는 자폐를 딛고 아이를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아이로, 그리고 세계적인 수영선수로 변화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한국최고의 브랜드 김승범 지음 / 호름출판사, 2005



2004년 8월부터 6개월간 주간조선에 연재되었던 '한국의 장수 브랜드' 시리즈를 재구성해 출간한 자료. 장수브랜드의 기준을 30년으로 잡아 꾸준히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를 추려 묶은 것이다. 새우깡, 초코파이, 소나타, 박카스, 피죤 ... 각각의 28개 브랜드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브랜드 로열티 구축과정을 상세히 분석한다. 이제 브랜드는 단순히 기업이 만드는 하나의 제품명이 아니라 기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100대 브랜드 중 상위 10대 브랜드의 순위는 그 변동이 대단히 미미하다. 이것은 한번 구축한 브랜드의 포지션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브랜드에 얽힌 에피소드를 풍성히 엮어 읽기 쉽게 했으며 브랜드 실무자들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인드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스티븐 코비 지음 / 김경섭 옮김, 김영사, 2005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1989년에 나와 공전의 히트작이 된 이후 벌써 16년이 흘렀다.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계발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지금 저자는 21세기 지식경제사회에서 필요한 8번째 습관을 제시하고 있다. '효과성을 넘어 위대함으로'라는 부제가 보여주듯 직업적 성공을 넘어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8번째 습관이란 '내면의 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남들도 찾도록 고무하라'라는 것이다. 재능을 발휘하고, 열정을 갖고,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며, 양심에 따라 행동할 때 진정한 성공에 이르게 된다고 저자는 적고 있다. 조직에서 자아실현의 벽에 부딪히게 될 때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국 시문학의 발자취

백제탑의 말

(전략)

헤가 이울면
세월의 물결에 부딪쳐
바스라져 나간 어גע 한 편이 쓰리고
밤이 깊으면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지만

나는 편히 쉴 수도
까무라치고 죽을 수도 없었다.

문 호 처

우리의 궁성이 불 탈 때
성 안에 가득한 아픔 같은 연기 속에서
내 가슴에 옮겨 붙은 불길은
아직도 타고 있는데,

백마강 찬 물을
마르도록 퍼다가 끼었어도
꺼지지 않는데 ...

(후략)

- 시집 '백제 가는 길'
(1991년, 문학예술사)에서

떠도는 풍경들과 자아의 상상력을 맞닥뜨려 한 편의 시를 짓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문 호 처 시인만큼 풍물들과 특별한 감동으로 쉽게 소통하는 시인도 드물다. 아마도 시인 자신이 평소 대상과의 소통에 대해 강렬하게 소망했고, 한 때 겪었던 무병과 같은 비의적 경험을 많이 축적했기 때문이라. 슬 하 게 겪고 떠돌면서 못 사람, 못 영혼들과 부딪히 교감한 때문 일 것이다. 결국 문 호 처 시인이 도달해 이른 곳은 '백제'였다.

'백제탑의 말'에서처럼 은유화된 백제탑의 아גע 한 모서리가 떨어져 나가고, 돌탑의 아래 언저리인 발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갔지만, 시인의 가슴에 옮겨 붙은 백제의 불길은 아직도 타고 있다는 연설이 그의 시의 현주소다. 무참히 짓밟힌

백제의 영혼들, 그 한 맺힌 원한의 울음소리를 객백 장군 칼의 쇠울음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기막힌 현실이다. 시인은 백제로 가는 길목의 풀 한포기, 나무 한 그루, 개어진 기와 조각 하나, 허물어진 성터, 이끼 낀 돌탑 등 무릎 꿇은 역초창세의 울부짖음을 그냥 지나치 못한다. 까무라치거나 죽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아직도 시인의 가슴에 옮겨 붙은 불길의, 현재의 시간으로 백제를 불러들이고 있다.

미당 서정주 선생이 신라의 시인이려면, 문 시인은 거허 백제의 시인이 아닐 수 없다.

강 상 윤
시인, 동국문학인회 사무국장

열린글터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매 분량의 글이나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TEL : 2260-3491 · 2 FAX : 2279-1270
문의 · 채보 : dgupress@dongguk.edu

디지털 시대 맞아 의사소통 수단 증가 진정한 마음 나눌 수 있는 계기로

요즘 음악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면 많은 학생들이 MP3를 이용하며 음악을 듣고, 모바일 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떤 학생들은 공강시간을 이용하여 컴퓨터실에서 '싸이질'을 하거나 네이트온 채팅을 하기도 한다. 가끔은 벤치에 앉아 PSP로 게임을 하는 사람도 볼 수 있다. '정말 몇 년 사이에 디지털 문화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 우리는, 이런 디지털다바이스를 이용하여 다른 이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자신만의 세계에 심취하고는 한다. 기술은 우리가 평소 자주 만날 수 없는 사람에게 쉽게 안부를 물어 관계를 지속시켜주고, 물리적인 제한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또한 스스로 오락을 즐기고 느끼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면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기술로 모두 전달하고 채울 수 없는 그것. 바로 인간미이다. 우리는 싸이 월드에서 일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상대의 근황을 살펴며 글을 남기기도 하고 안부를 물을

겸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물론 디지털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생활이 습관처럼 몸에 배고 있다. 빠르고 바쁜 일상 속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이어나가고,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래의 인간미를 간직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둘러 보자. 그리고 피상적 연락만 취하지 말고 직접 만나 마음을 나누어 보자. 사람과 기술이 사는 세상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김태훈 (사과대 신병3)

비정규직 환경 미화원도 우리학교 구성원 배려와 관심 가지도록 노력하자

우리가 교문을 들어서면 제일 처음 만날 수 있는 분, 무심코 지나가는 학내 건물 강의실과 복도에서도 늘 만날 수 있는 분. 바로 동국대학교를 위해 일하시는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다. 밤이든 낮이든 학생들이 숨쉬며 생활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관리해주시는 분들을 우리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경험이 있을까?

를 맡기 위해 학생들은 재빠른 걸음으로 열람실을 빠져나간다. 어디선가 급제 파란 통과 검은 비닐봉지를 드신 청소부 아주머니들이 들어오시더니 익숙한 손놀림으로 열람실 구석구석을 훑고 댄다. 불과 몇 분 전만해도 학생들의 학습공간이었던 열람실이 아주머니들의 작업공간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었다. 남이 버린 종이 조각을 정리하거나 "수고하세요"라는 형식적인 말을 남기는 학생이 한 둘 있기는 했지만 그냥 열람실을 빠져나가는 학

생이 훨씬 많았다. 나 역시도 그냥 열람실을 빠져나갔던 학생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문득 나와 함께 대학이라는 공간을 꾸러가는 분들에게 너무 무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가지는 작은 관심이 그분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학내시설에 조금이나마 신경을 쓴다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번거로운 일손을 줄여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어렸을 적 가르침을 내가 손 닿을만한 곳에 있는 분들에게 실천할 때 조금 더 밝은 학교, 밝은 사회가 될 것이다.

서기웅 (공과대 컴공4)

한일 대학생협 학생교류 행사 참여 생협 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었던 자리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2005년 한일 대학생협 학생교류세미나에 참여했다. 양국 대학생들 간의 교류를 통하여 한일 간의 문화적 역사적 이해를 높이고자 1998년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일본 대학생 30명과 우리나라 대학생 22명이 모여 생협학생위원회의 사업을 서로 발표, 토론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자리는 우리나라 대학생협의 발전과 전망에 대한 고민을 일본 대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찾아나갈 것이라는 노력으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뿐만 아니라 종근위인부 할머니들의 나눔의 집 방문, 갯벌 체

험, 도자기만들기 등을 함께 하면서 생협의 평화, 환경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뜻 깊은 자리였다. 또한, 서대문 횡무소와 독립기념관을 견학하면서 자칫 분위기가 무겁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양국의 역사를 평화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위기에 이 후 우리가 만들어갈 평화의 메시지를 새기는 데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우리학교 상록원 식당에서 진행된 정리의 시간에서는 일본 학생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한

국에서의 경험을 일본친구들에게 알리겠다는 다짐이 있었고, 한국학생들은 내년의 교류를 다짐하면서, 감정표현에 솔직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본사람들에 대한 선입관이 깨어졌다는 평기도 하였다. 비록 언어가 통하지 않고, 지난 역사의 아픔을 가지고 시작한 행사였으나, 우리는 서로의 진실한 눈빛과 마음으로 성공적인 학생교류를 만들어냈다. 앞으로도 계속될 한일생협의 교류를 통하여 시작단계인 우리대학생협의 발전지점을 함께 고민하고, 대학생협의 실질적 조력원인 학생들의 힘으로 생협의 가치인 환경과 평화를 우리세대에 이루어나가는 작업을 해나가야 하겠다.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의 미래다.

정재수 (아간경영4)

인식전환 필요한 장기기증



논단

김동엽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선임간사

자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듯 장기기증 등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사회적 분위기 또한 더없이 호의적인데 실제 장기기증자가 눈에 띄게 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손꼽히는 이유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관리감독체계이다.

2000년 2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해인 2000년에 뇌사장기 기증자가 64명으로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2001년 52명, 2002년에는 36명까지 줄어들었다. 법 시행 이전인 1999년의 뇌사장기 기증자 수 164명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든 숫자임은 한눈에 알 수 있다. 2003년 이후에는 뇌사자 발굴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법의 보완이 이뤄져 현재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다. 뇌사 판정 절차의 간소화, 잠재 뇌사자 신고제도의 시행 등 보다 적극적인 보완과 개정이 필요한 상황.

또 하나는 기증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장기기증자 본인은 물론이고, 기증을 결정한 가족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장기기증 지정은 커녕 장기기증 이후에 유가족에 대해 무관심한 우리나라와 비

교할 때 배려로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기증이후에 가족들은 심리적인 허탈감과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장기를 매매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아 장기기증 자체를 후회한다는 기증자의 말을 듣기도 했다.

본부는 1997년부터 매년 9월의 한 주를 장기주간으로 지정해 장기기증에 참여한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감사의 행사를 갖고 있다. 또한 MOD(기증자 어머니들의 모임)와 새생명나눔회(신장기증 및 이식인들의 모임) 등의 모임을 통해서 기증자 및 가족에 대한 기증이후의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본부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부터 장기기증 공익광고가 각종 매체를 통해 방영되고 있다. "장기기증은 생명을 남깁니다!"로 끝맺는 광고를 볼 때마다 이제는 장기기증운동이 하나의 사회문화운동으로 뿌리내렸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하루속히 시스템이 보완되고, 장기기증자 및 가족에 대한 사회적 시각 또한 긍정적으로 바뀌어 장기기증이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좋은 일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이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하루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독자 사진첩



가을 길 떠나기... 가을이 막 시작될 무렵 남양주 능내에 다녀왔습니다. 단산 정약용 생가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셔터를 눌러봤습니다. - 민속극연구회 '발'

독자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4매 분량의 글을 여론면에 게재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ongguk.edu

보리소

자부심 갖고 자신을 낮춰라

얼마전 인디밴드 '카우치' 멤버들이 음악프로 생방송 중에 성기를 들어내는 돌발적인 행위로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이 행위에 대한 반응도 다양하여, 세태를 반영한 것이라는 자조와 더불어 이 지경까지 이르러 내버려둔 건 우리 잘못이라는 기성세대의 자책하는 소리도 있었다. 반면에 자기가 좋아서 벗은 것이고, 그것도 충동적 행동이었을 뿐인데 뭐 그리 비난을 하느냐는 반응도 적게는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정서로는 용인받기 어려웠고 결국 위법으로 결론이 났다.

개성 표현이 무한정이라 할 만큼 자유로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 예프닝이었다.

타자와의 차별화를 통하여 자신을 부각시켜보려는 것은 자유이고 당연한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나만의' '더욱 두드러지게' 라는, 쉽게 말하자면 '튀어야' 라는 풍조가 특히 젊은 세대에서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카우치'의 행위를 차별화 수단의 하나 일 뿐 아니라 인식한다면 '그게 무슨 잘못인데?'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타자와의 차별화를 지나치게 외적 요인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짙다. 성형, 명품, 따라하기 등등, 속된말로 가랑이가 찢어질 지경이거나 찢어진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잡보장경'이란 경전에는 "태산과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라는 말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빈 강물이 소리가 크다'라는 의미일 것이다. 가을의 문턱에 있는 캠퍼스에서 나타나는 몸은 어느 만큼이나 낮출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정우택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동국 히노아락



▲ 4월 19일 경무대로 행하는 우리학교 학생들



▲ 4·19혁명 부상자를 위문하고있는 정두석 전 총장



▲ 4·19혁명 희생자 노회두의 묘



▲ 4·19혁명을 보도하는 동대시보 기사

④ 4·19 속의 동국대

우리학교는 불교정신에 입각해서 설립되었지만, 교수초빙과 학생 입학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자유롭도록 할 일을 잊지 않는 동국인의 정신은 4·19항쟁에서 명백히 표현되

었다. 1960년 독재자 이승만을 몰아낸 4·19항쟁에는 동국인들이 선봉에 나섰으며 수많은 선배들이 피를 흘렸다. 이를 기리기 위해 1960년 11월에 동우탑이 건립된다.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신문에 대한 관심 환기 시켜야

동대신문의 기사들을 보면 학교를 4년 연속으로 다니면서 공부와 연애편고 해보지 않은 것이 없는 나로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정보가 들어온다. 대학생활에 적응하게 되면서 동대신문을 더 보게 되었는데 주간지인 까닭에 다른 학내 언론에 비해서 여러 쟁점들을 그때그때 민감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학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동대신문에 협조를 요청해 보기도 했고 또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한 기사를 실었을 때 신경이 쓰였다.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보겠는가에 대해 반신반의하면서도 취재하거나 기사를 내면 실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신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예를들어 지하철 신문과 같은 디자인도 있는데 디자인을 한번 바꿔본다든지, 기존 배포방에만

의지하지 말고 직접 학생들을 만나며 읽기를 권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 몇 번인가 오보를 하거나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우를 직·간접적으로 본 일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기도 했지만 실제 동대신문 기자 한명당 10군데가 넘는 학내 출입처를 돌고, 학외에서 쟁점이 터져도 그것을 취재해야 하고 청탁한 사람이 글을 늦게 보내면 밤새고 기다리며 편집하는 모습을 보며 이해가 되기도 했다.

동대신문은 학교를 대표하는 언론이고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읽지만 위상에 비해서 관심은 좀 덜한 편이다. 항상 바쁘지만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직접 신문을 여겨서 기 권하는 것도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공들여 쓴 기사를 더 많이 읽게끔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이 아닐까 한다.

차경윤 (사과대 정외4)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10/3)	개천절 휴무	개천절 휴무	개천절 휴무
화 (10/4)	순두부찌개 (1800) 제육김장 (2000) 꾸꾸미불고기 (2000)	북어해장국 (1800) 닭꼬치구이 (2000) 베이컨야채볶음밥 (2000)	원장찌개 (3200) 참치전골 (3500) 닭조림 (3500)
수 (10/5)	돈갈비김치찌개 (2000) 중국식볶음밥 (2000) 떡볶고기 (2000)	설렁탕 (2000) 오징어덮밥 (2000) 참치캔비빔밥 (2000)	원장찌개 (3200) 해물찌개 (3800) 버섯불고기 (3800)
목 (10/6)	콩나물국밥 (1800) 닭도리탕 (2000) 비빔밥세트 (2000)	어묵매운탕 (1800) 치즈볶음밥 (2000) 제육볶음 (2000)	원장찌개 (3200) 만두전골 (3500) 콩치구이 (3500)
금 (10/7)	순만두국 (2000) 참치김치덮밥 (2000) 쇠고기잡채 (2000)	찜뽕면 (1800) 리조죽 (2000) 하이라이스 (2000)	원장찌개 (3200) 육개장 (3500) 산채비빔밥 (3500)

선배를 만나다

신임 법무부차관에 선임된 김희옥 동문

“국민이 부여한 권한, 보답 위해 힘쓸 터”



여한 자리인 만큼 맡은 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다. 법무부 내에서 차관직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검사장으로 있던 지 4년이 다 되어 있었던 터라 이번 임명 역시 담당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다.

- 자신이 생각하는 법무부 차관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 법무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으로서의 위치 역시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이라고 보아야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현재 법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법령의 제·개정 시 법무부 내의 의견 개진, 교정 행정, 출입국 관리 부분 등 다양한 법률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학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 1968년 입학 당시 학교 전체 수석을 차지해 그때에도 학교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었다. 물론 대학 시절 내내 학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 신입생 때에는 학부 학생회장 활동을 하기도 하고 2학년이 올라가서는 다양한 학생회 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았다.

아직도 그 당시에 지도교수였던 한상범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곤 한다.

- 학교와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학부를 졸업한 후 서울대에서 신문학 석사과정을 거쳐 우리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부와 대학원 생활에 이어 2002년부터 2년간 행정대학원 법학과 겸임교수로 강의까지 했으니, 다른 동문들에 비해서는 학교에서 생활한 시간이 긴 만큼 학교에 대한 애정도 클 것이라 생각한다. 학교가 내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시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더해 후배들에게는 당나라 때 임제 의현 스님이 했던 ‘수처작주 임처개진’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 말은 ‘사람이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자기가 주체가 되면 그 자리가 곧 진리의 자리이다’는 뜻이다. 어떠한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항상 자신의 가치에 대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루에 3번 이상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인생, 목표에 어디까지 와 있는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 볼 수 있는 자세를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



김희옥 기자 jhb83@dongguk.edu

“학교와 후배들의 성원에 고마울 따름이지요. 더욱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지난달 학내 곳곳에서 구성원들의 눈길을 끌었던 김희옥 동문의 법무부 차관 취임을 축하하는 플래카드. 김 동문의 취임을 기념해 학교와 학과 후배들이 마련한 ‘선물’이다.

제18회 사법고시 합격,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대검판송부부장 등을 거쳐 지금의 법무부 차관의 자리까지, 우리학교에 큰 ‘명예’를 안겨주고 있는 김희옥 동문을 만나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이번 취임에 대한 소감은.
= 공직에서 일한 지 어느덧 18년이 다 되고 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공직은 국민이 부

그림 전시회 연 국어교육과 교재석 교수를 만나

“그림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배워”



의 그림이 담긴 책을 출간하고 작품 전시회를 함께 연 독특한 교수가 있다. 우리 학교 국어교육과 교재석 교수가 바로 그이다.

“지난 2년 동안 평소 그때, 그때 그리고 싶었던 그림들을 틈틈이 그려놓았어요. 그리고 35년간 써온 일기 중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에 그림의 일부를 얹어 책을 출간하게 되었지요. 때가 되니 꽃이 터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사동 ‘관촌 미술관’에 전시된 그의 작품과 이번에 출간된 책 ‘불가능한 꿈을 꾸는 자의 자화상’에 실린 글에서는 그가 경험한 생활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담백하게 맛 볼 수 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이 좋았다는 그는 살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

의 풍경들을 틈틈이 담아두곤 했다.

“초기 작품들에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담은 리얼리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림 그리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당시에 느껴지는 나만의 ‘마음’을 작품에 담기 시작 했어요.” 학술서적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와 그림을 담은 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교재석 교수. 책 또한 가족, 유년시절 이야기부터 그림의 독서일기와 그림에 대한 예술관을 나타낸 이야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아우른다.

“항상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 또한 일 이외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이번 책과 작품 전시회를 통해 저를 드러내는 것도 사람들과



재미를 공유하며 스스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의 책 표지에 있는 ‘유식(놀이 먹) 교수의 작난(난리)를 치는 일기’라는 유머 넘치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 늘 즐거운 인생을 꿈꾸는 교재석 교수. 연구와 교육 생활 틈틈이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아내는 그로부터 삶을 즐길 줄 아는 넉넉한 여유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내일(4일)까지 인사동 관촌 미술관 2층에서 열린다.

정영아 기자 brightah@dongguk.edu

국어교육과 교수가 직접 자신이 낸 책의 삽화를 그리고 나아가 그림 전시회까지 갖는다. 문학작품과 씨름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할 것 같은 국어교육과 교수가 이러한 일을 한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의아해할 것이다. 실제로 자신

정태섭 교수의

역사 속 인물이야기



중국 근대 여성 혁명가 추근(1875-1907)

혁명정신 속에 감춰진 가슴아린 삶

추근(1875-1907)여사는 중국 절강성 소흥의 관료지주 집안에서 태어났다. 같은 고향의 호상의 아들과 결혼하였고 남편이 돈으로 벼슬을 사서 관리가 되자 남편을 따라 북경에서 살았다. 때는 바야흐로 서양열강의 침략으로 중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었다. 여기서 시국상황에 비분강개한 추근여사는 1904년 봄 어느날 결연히 봉건적 속박을 끊고 결혼생활을 청산하였다. 어린 자식을 친구에게 맡긴 다음 어렵게 여비를 만들어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중국 최초의 여성 일본 유학생이 된 것이다.

당시 일본 동경에는 많은 중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후에 중국혁명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손문 등 많은 혁명지사들도 있었다. 1905년에는 손문이 중심이 되어 ‘중국혁명동맹회’가 결성되었다. 이 조직이 훗날 신해혁명을 주도하는 모태가 되었다. 추근 여사는 바로 여기에 가입하여 다가오는 혁명을 위한 준비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일본 정부의 탄압을 피하여 귀국한 후에 다시 고향인 소흥으로 돌아가 살았다. 이후 죽을 때까지 여기에서 살며 중국 근대 최초의 여권운동가로서 또는 혁명운동가로서 활동하였다. 특히 지하 비밀조직인 ‘광복군’을 조직하여 무장봉기를 준비하던 중 비밀이 새 관헌에 체포됐고, 그 다음날 바로 처형당했다(1907). 꽃다운 33세였다. 형장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시는 그후 두고두고 중국 근대문학의 소재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을 울렸다고 한다.

나는 언젠가 소흥지방을 여행하던 중 추근 여사가 체포되던 그 날까지 살았던 그 집, 그 방에 가보았다. 일찍이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결혼하였던 그녀가 안락한 생활을 접고 험난한 혁명운동에 뛰어들어 가난하게 살던 집이라는 생각만으로도 어떤 감회를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녀의 초라한 방 한편에 놓여있는 침대에 살짝 때묻은 이부자리가 개켜져 있는 것이 아닌가. 여류협객을 자처하며, 군사조직을 직접 지휘까지 한 호방한 성격의 여걸이 이런 초라한 방에서 거거하며 이부자리에 때를 묻고 있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날 듯하였다. “가을 바람 가을 비가 사람을 슬퍼 죽게 하는구나”라는, 많은 사람을 울린 마지막 시구보다도 나는 그녀의 체취가 배어있을 그 때묻은 이부자리를 보고 더 가슴이 아왔다.

인물동정

의학과 이정호 교수

‘21세기 세계우수과학자’ 선정



우리학교 이정호(의학) 교수가 영국의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가 발간하는 ‘21세기 세계 우수과학자 2000인’에 선정됐다. 현재 국제북막투석학회 회원, 대한신장학회 학술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 교수는 이번 선정으로 미국 마르퀴즈 인명센터 등재와 함께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 인명 센터, 미국 인명연구소 등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실리는 영광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이정호 교수는 지난 10여년간 매일 한차례씩 북막투석 환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의료봉사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의회 사무총장에

이병선 동문 선출



우리학교 이병선(사학 89졸) 동문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 동문은 지난 10여년간 국회의원법비서관을 거쳐 그동안 한나라당 중앙위원, 강원도 체육이사,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 등을 역임한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병선 동문은 “강원도의회가 시·도의회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학교에서 대학원까지 수료한 만큼 모교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일류동국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주십시오

후원금 종류: 100만달기금, 발전기금, 불교병원기금, 장학기금, 특정목적기금, 단위기금, 동국사랑저금통기금, 수증물품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금공제 기부자님께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후원금 참여방법: 일시완납, 월납, 분납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개인, 법인 및 단체 명의로 후원 가능 계좌이체(CMS)를 통한 편리한 방법 가능 현금이 아닌 부동산, 유가증권, 미술품 등의 수증물품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캠퍼스 대외협력실 T 02-2260-3794~5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실 T 054-770-2100 ARS 기금접수 060-7000-119



만화동아리 '만화열' 상영회 열려

국가별 만화 특색 돋보인 자리

생동감 넘치는 화면, 탄탄한 줄거리 구성, 아름다운 주제곡 등 애니메이션은 이제 더 이상 어린이들의 문화가 아니다. 그러나 막상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하면 입맛에 딱 맞는 작품을 고르기 힘들 때가 많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학내에 마련돼 호응을 얻었다. 바로 만화동아리 '만화열'에서 준비한 애니메이션 상영회이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중앙도서관 AV실에서 열린 이번 상영회는 △28일=오세암, 마리아 이야기, 원더풀데이즈, 신암행 여사 △29일=곰돌이 푸의 해탈 캠프 무비, 라이온킹, 마다가스카, 크리스마스의 악몽 △30일=테니스의 왕자 극장판, 고양이의 보은, 금색의 갓슈벨 극장판, Final Fantasy7 Advent Children 등 총 12편의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는 한·미·일 3국에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으로 꾸며져 학생들이 각 나라별 만화영화의 특색을 경험하기 충분한 자리가 됐다. 이를 기획한 만화열 회장 조병연(컴공2)군은 "동아리 내부적으로 애니메이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많은 학생들과 함께 부담없이 만화영화를 즐기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을 상영한 첫 날에는 전래 설화를 모티브로 다섯 살 동자의 천진난만한 동심과 자연과의 교감을 감각의 풍경화로 그려진 동화 판타지 '마리아 이야기' 등 한국적 냄새가 짙은 작품들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를 주관한 김은호(사과대1)군은 "극장에서 쉽게 놓쳐버릴 수 있었던 애니메이션을 학교 안에서 만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영 첫 날부터 예정 시간보다 작품 상영이 늦춰지고, 기기 결함으로 상영 중간에 화면이 멈추는 등 미숙한 모습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선정된 작품 대부분이 대중적인 애니메이션으로 치중돼 학생들이 신선함을 느끼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참여가 다소 적었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다.

하지만 매년 열리는 정기 행사인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철저히 준비와 기획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영회 후 작품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관객들과 진지한 토론자리를 마련 하는 등, 앞으로는 보다 발전적인 애니메이션 상영회가 되길 기대해본다.

정명아 기자
brighthah@dongguk.edu

한·중·일 문화표절 실태분석

이제는 정정당당한 '문화공동체'로 거듭날 때

방송·게임 등 교묘한 짜깁기 증가... 관련 규정법 처벌기준 모호해

예부터 한·중·일 3개국은 지리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위치한 데다 동양의 문화를 선두적으로 이끌어가는 존재로서 문화의 상호 교류해왔다. 지난해 절정을 이룬 '한류열풍'은 한국과 중국, 대만, 일본의 문화가 과연 얼마만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이는 동북아 3개국의 문화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다소 '이상한' 문화 교류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표절'이다. 몇 해 전부터 음반, 게임, 방송 등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가 일본 것을, 혹은 일본이 우리 것을, 중국이 우리 것 또는 일본 것을 '티 안나게' 베끼는 의혹이 높다. 특히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일본이나 중국 문화를 발 빠르게 접하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러한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주안'이라는 아이돌을 가진 한 네티즌은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나라의 일본방송 표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올리는 게시판을 따로 하나

개설했을 정도다. 또한 'meiji1854'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지난해 자신이 직접 지상파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사 본사를 찾아가는 등의 운동을 벌였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네티즌들의 움직임이 그냥 일부 네티즌들의 논란 또는 의혹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방송, 음반 등에 대한 표절 시비가 법적 문제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위원회 심의규정 제33조 표절금지 항목에서는 "방송은 국내·외의 타 작품을 표절하거나 현저하게 모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표절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방송은 공공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표절과 관련해 제기되는 많은 의혹에 대한 적당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이지혜 모니터부

장은 "우리 방송상황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구조적 인프라가 넓지 않고, 방송 제작도 단기간에 기획·제작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원인과 이유에 대해 모두 분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제작자들의 도덕적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방송콘텐츠의 해외판매가 적극 이뤄지고 있는 요즘에 국내 방송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게임분야에 대한 표절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카트라이더' 등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들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만든 게임회사들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일본의 게임회사 '코나미사'는 우리나라 게임 개발·유통업체인 네오플과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게임 '신야구'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이는 일본게임업체가 우리나라 게임 업체를 상대로 낸 첫 소송으로, 그 결과가 주

목된다. 음반분야의 경우도 방송과 마찬가지로 표절에 대한 단정적인 판결을 내리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한류열풍에 따라 우리 음악을 중국·대만 가수가 번안·리메이크 해 부르는 경우가 흔할 뿐만 아니라 종종 표절논란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의 문화가 보다 발전적으로 나아가려면 이러한 '표절 형식의 교류'는 적극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은 결과적으로 각국의 문화 저해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절에 대해 먼저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요즘 학습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바람직한 방향을 위해서는 각국이 자국의 전통문화에 기반한 문화를 형성해 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문화단신

청계천 복원 맞이 행사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다채롭게 연다. 먼저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가 오늘까지 청계광장에서 열린다. 또한 '2005 청계천을 거닐다'는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념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 전시회에는 25개 팀 38명의 젊은 작가들이 참여해 청계천의 변화된 모습과 비전을 사진·영상·설치미술 등을 통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라진 청계고기와 복원된 후 청계천의 모습을 담은 오용길의 '흑목-서울' 그림전이 오는 20일까지 인사동 선화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극 '로사줄' 예술극장서

연극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허너'가 오는 7일까지 우리학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공연된다.

국립극장과 한국세이스피어학회가 공동주최하는 '세이스피어 난장 2005'의 참가작인 이 연극은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 새로운 재미를 주는 작품이다. 더욱이 발라드와 힙합·랩·가요·팝송 등을 가미시켜 더욱 신선하다. 한편 '세이스피어 난장 2005'는 지난달 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현대극으로서의 세이스피어'라는 주제 아래 스베니스의 상인 스웨트 트래버스 트로미오와 줄리엣을 재구성해 공연하는 행사이다.

내가 좋아하는 문화예술인

설치미술가 오노 요코



박보라 경찰학 석사과정

당신 앞에는 지금 사다리가 놓여 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니 새하얀 판자에 깨알 같은 글씨로 무엇인가가 쓰여 있다. 하지만 글씨는 너무나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도 판자에 돋보기가 달려있어 당신은 돋보기를 들어 그 글을 볼 수 있다. YES! 그렇다. 당신이 본 것은 긍정(YES)이다.

그림 비틀즈의 존 레논의 아내로 더욱 유명한, 그래서 존 레논의 표현대로 "너무나 유명했던 무명작가"인 오노 요코. 실제로 그녀는 서구 플럭서스 운동의 형성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미술·음악·영화·퍼포먼스 등 장르를 막론한 전위 예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20세기 예술계의 뮤즈였다. 또한 반전과 평화를 주창하며,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와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Yes'의 메시지를 예술로 승화시킨 여성

오노의 작업은 플럭서스 예술의 틀을 넘어서 작품을 통해 작가와 관람자의 긴밀한 교감을 꾀한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 이제는 상징적인 퍼포먼스 작품으로 기억되는 '자르기 Cut Piece'에서 오노는 40여 분 정도 시종일관 무표정한 가면을 쓴 듯한 얼굴로 무대 위에 앉아 관객들을 무대 위로 불러 그녀의 옷을 잘라버리도록 하였다. '자르기'는 관객이 지켜보면서 느낄 수 있는 자아의 고통스러움을 표현한다. 또한 그것은 개인과 사회, 자아와 성, 소외와 연결을 묶으며, 일상적으로 행해지나 아무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폭력에 대한 그녀의 사회적 논평이기도 하다. 동시에 '자르기'를 보는 관객은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낸다. 그것은 개인의 경험이라는 구체성에 바탕을 둔 작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노의 모든 작업은 그녀가 추구하는, 관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인간의 의식을 넓히는 끊임없는 과정이라 한다면 오노 요코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분명히 즐겁고, 재치 있으나 가볍지만은 않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예술을 통해 보여준 것은 세상에 대한 희망과 긍정(YES)이라는 메시지이다. 그렇기에 그녀와의 대화를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차를 끓이고, 그녀와 함께 의자에 앉을 것이다. "그래도 한번 살아 볼만한 세상 아닌가?"라고 중얼거리면서.

메아리

재(財)판소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직 상실했습니까?" 휴대폰과 인터넷을 왕성하게 사용하는 10~20대를 중심으로 독특한 문화가 생겨났다.

기호를 이용한 '이모티콘'이나 문장의 어미에 변화를 주어 문체를 바꾸는 '하삼체(?)'는 인터넷 신조어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인터넷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당황스러울 따름이다.

▲당황스러운 상황은 인터넷에 만 있지 않다.

최근 대법원이 민주노동당 조승수 전 의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의 의원직 박탈을 선고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유지, 통상적인 정치활동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조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박탈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진보정당에 대한 사법 살인"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이번 논란보다 '당황'스러운 점은 의혹이다. 민주노동당은 검찰과 법원 인사들까지 유착된 'X파일' 진상규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파헤쳐왔다. 이에 삼성장학생 출신인 법관들이 때마침 조 전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낳고 있다.

또한 민노당의 발표처럼 보수적 인대법원 구성요소가 진보정당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이번 판결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하는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을 놓친 대법원의 모습은 최고재판소답지 않았다. 오히려 재(財)판소에 더 가까울지 모르겠다. 문제는 대법원이 법조문 적용의 기술적 문제보다 해당법률의 입법정신과 국민적 상식을 놓쳤다는 부분이다. 물론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 하지만 합리적이지 못했다. 다시 이같은 희승은 없어야 한다. 돈은 막고 말은 풀어주는 선거법 개정안이 필요할 때이다.

황수장 편집장
hjs0228@dongguk.edu

중구 장충문화체육센터 회원모집

회원가입문의전화 : 2264-7624/5

독서실 이용안내

이용회비 : 1회 입장시 500원
이용대상 : 초, 중, 고, 대학생 및 일반 중구민 누구나

운영시간 및 회원 접수시간

헬스장/독서실 : (월~토) 06:00~22:00
(일, 공휴일) 09:30~18:00

- * 헬스장 회원은 1일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 독서실 이용 중 소지품을 가지고 퇴실한 경우에는 이용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업장 정리를 위해 주 1회 휴무할 수 있습니다.

헬스센터 회원모집

참여대상 : 중구민 누구나
참가회비 : 1개월 회비 - 35,000원
1일 이용회비 - 3,000원



풍부한 경험, 전문적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강사진

장충문화체육센터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동국대학교 운영본부

생협발전 방안 공모 안내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독립법인 출범 2주년을 맞아, 비영리 소비자 협동조합으로서 새로운 비전 정립과, 참신하고 발전적인 경영전략 수립에 유익한 지점이 될 방안 설계에 참여해 주실 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교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본 공모과제는 본교 건학 100주년을 앞두고, 생협이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지점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 공모대상 : 생협발전 방안
- 공모지역 : 서울캠퍼스 교원으로서 본 조합원 (단독 혹은 공동)
- 공모분야 : 가. 생협 경영의 합리화 관련 분야 나. 교내 복지 서비스 향상 관련 분야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미션 및 비전 관련 분야 라. 기타 생협 발전에 대한 제안 등
- 공모과제 지원금 : 일금일백만원(₩1,000,000), 0명
- 신청기간 : 2005년 10월 17일
- 제출기한 : 2005년도 12월 23일까지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공모과제 시행 계획서 포함) * 응모신청서 download(http://dgcoop.dongguk.ac.kr)
- 접수방법 및 문의 : 가. 접수 : 생협 사무국 교원위원회(회화관 1층) 나. 문의 : ☎ 2260-8953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교원위원회

2005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졸업논문제출 안내

- 대상자 : 200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조기졸업신청자, 기수료자포함)
- 논문제출 기간 : 2005년 11월 4일(금)까지
- 제출처 : 가. 주전공 : 각 학과(전공) 지도교수님께 나. 복수전공 및 연계전공 : 각 학과(전공) 사무실
- 논문 심사 결과 : 2005년 11월 24일(금)까지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
- 논문심사 결과입력 : 2005년 12월 2일(금)까지
- 논문심사결과 확인 : 2005년 12월 12일(월) 이후 학교 홈페이지
- 유의사항 : 가. 논문 하나로 주전공과 복수전공 모두 인정 불가 나. 위 기간에 논문 미제출자는 학위수여 불가

교무처

취업성공기

**긍정적 미래모습 설정해
분야와 관련된 경험 넓혀**



이 정 민
KBS 아나운서 2005 공채 합격
광고 04졸

“발표력이 좋고, 말을 조리있게 잘 함”
초등학교 시절 내 통지표에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던 말이다. 어린 시절의 나는 반장보다는 학급회의를 진행하는 회장을 더욱 즐겨했다. 국어책을 잘 읽던 꼬마였다. 그런 꼬마에게 “너는 커서 아나운서하면 잘하겠구나”하는 어른들의 말씀은 운명으로 느껴졌던지, 그 때부터 내 맘 속에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자라나고 있었다.

대학에 입학해서도 그 꿈은 계속 됐고, 자연스럽게 광고학과 신문방송학을 복수전공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해 본 뒤에 포기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내 꿈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분야를 항상 관심있게 지켜보고, 필요하다는 요소가 있다면 준비하는 등 하나하나 갖춰나가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동아리활동, 관련분야의 수업(물론 전공수업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대학의 좋은 점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어느 수업이든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을 들으며 공부했고, 방학을 이용해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등 나의 능력과 소질을 키워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다녔다.

학교방송국에서 아나운서로 있던 친구에게 뉴스 리딩도 배우고, 가르쳐준 방법으로 복식호흡을 연습하기 위해 녹음기 하나를 들고 운동장 구석 스탠드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목이 쉬도록 원고를 읽으며, 주말의 텅 빈 도서관을 내 방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지낸 적도 있었다.

누구나 한번쯤은 “내가 이런 모습이면 어떨까?”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꿈꿔 오던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대학에 들어와 선배들을 보고 알게 된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를 수 있을 만한 것인가’라는 확률이 아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즉 그것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다.

장기적 경제 불황이라고 한다. 취업이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그 절망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 절망은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어느 날 자신이 그려본 그 모습의 내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할 수 없었지만,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기에 남몰래 키웠던 꿈. 나는 이제 내 꿈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더 많은 좌절과 실패가 있겠지만,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언젠가는 내 꿈을 이룰 결 일기에.

제대로 알고 하자 - NGO

국내·외 사회문제 해결하는 자발적 조직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인 참여의식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생성되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비정부기구)는 이를 잘 반영한다. 더욱이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대학생들은 국내 NGO뿐만 아니라 국제 NGO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사회와 국제사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고 대안을 찾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도 NGO 활동의 큰 장점이다.

사회정의·소수권익보호 등 앞장서

UN에서는 NGO를 ‘정부 이외의 기구로서 국가 주권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연대와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 공식조직’이라 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체까지 NGO로 인식한다. 이러한 NGO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견제기능=시위, 집회, 캠페인, 공청회, 성명발표, 입법청원 등 국가와 시장 감시·견제 △복지기능=재난구호, 빈곤구제, 소비자권리 옹호, 에이즈환자보호 등 소수 집단 보호 △대변기능=여성·장애인·노인·청소년·아동·동성애자·에이즈환자·알콜 중독자·재소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대변 △조정기능=정부간, 정부와 이

익집단간, 이익집단간 분쟁발생시 조정자의 기능 △교육기능=청소년학교, 여성아카데미, 환경캠프 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실시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활동 아래 국내·외에는 수많은 NGO단체가 결성되었다. 가장 활동이 활발한 대표적인 국제 NGO를 살펴보면, 인권단체인 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 환경단체인 그린피스(Greenpeace), 의료단체인 국제적십자사(ICRC), 난민구호단체인 옥스팜(OXFAM), 시민교육단체인 시비타스(CIVITAS) 등이다.

이 중 우리나라에 지부를 둔 단체는 엠네스티, 국경없는의사회, 대한적십자사 등이다. 또한 기존에는 독립적이었던 우리나라 단체가 국제 NGO 산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연합’이 지난 2002년 세계 3대 환경 NGO 중의 하나인 ‘지구의 벗’ 한국 지부가 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국제 NGO와 연계활동

우리나라도 최근 10여년 새 정치적인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NGO가 급속도로 많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NGO로는 경제정의실현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인권단체인 참여연대, 환경단체인 환경연합과 녹색연합, 소비자 권익보호

를 위한 한국소비자연맹, 여성권리를 위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있다. 이러한 NGO는 국내에만 그치지 않고 국제 NGO들과 연계해 활동하기도 한다.

경실련 국제연대 김도혜 간사는 “경실련 국제연대는 세계 NGO 연대체인 Social Watch의 소속단체로 활동한다”며 “Social Watch는 주로 선진국가 주도의 세계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도국가의 경제정의 문제, 환경 파괴 문제, 남녀평등권 신장의 문제 등을 고민하는 단체로, 경실련은 한국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내·외 대부분의 NGO에서 대학생들이 자원활동가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봉사단체의 경우, 방학 중 아프리카·파키스탄과 같은 지역으로 해외 봉사를 갈 학생들을 모집한다. 뿐만 아니라 김도혜 간사는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부서에 연락해 자원활동가로 일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말한다.

우리 시대에 NGO는 앞으로 더욱 증시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 개혁과 제도 개혁을 실시하는 데에 NGO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의 NGO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자기 검증과 진단에 힘쓰고, 사회적 평가에 대해서 민감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일러스트=(현)

통합검색 ▼ 2주간 인기검색어 검색

지구 바랑화면

태풍 ‘나비’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영향일까.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네티즌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3시간마다 새로운 사진 정보가 제공되는 ‘winXPlanet’이라는 프로그램은 구름의 모습, 지진 발생 지역 및 강도, 태양의 위치, 국제우주정거장, 인공위성의 궤도 등이 변하는 모습을 컴퓨터 바랑화면에 나타내준다.

아나콘다 사건

개그우먼 정정아가 KBS ‘도전지구탐험대’ 촬영에서 아나콘다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사건 확인 과정에서 정정아는 사고 후에도 제작진이 촬영을 강행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제작진은 이를 극구 부인 하는 등 엇갈린 진술이 오갔다.

그러나 결국 이들의 주장이 오해로 판명나 네티즌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도전지구탐험대’는 지난 99년 텔런트 김성찬이 뇌성 말라리아에 감염돼 사망한 사건에 이어 6년만에 발생한 두 번째 사고로 인해 이번 가을 개편을 맞아 폐지될 예정이다.

김진호

자폐성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2005년 세계 장애인 선수권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하며 금·은·

동메달을 목에 건 김진호 군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를 딛고 운동선수로서 노력하는 모습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김 군은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비장애인 전국체전에 부산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중국교통사고

MBC뉴스데스크가 교통사고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이기 위해 중국 교통사고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해 논란을 일으켰다.

자전거를 타고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자동차에 치여 핑계 나가는 장면, 미니버스에 치인 행인이 길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을 담은 이 동영상은 네 차레나 반복돼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궁

다음해 1월 방영 예정인 드라마 ‘궁’이 촬영 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미 많은 팬을 거느린 만화를 원작으로 함에 따라 캐스팅된 드라마 주인공 공을 두고 적합성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궁’은 광복 이후의 우리나라가 입헌군주제를 채택한다는 설정 아래, 평범한 여고생이 왕세자비가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이다.

정리=문화부
출처=네이버, 연합뉴스

다면 좋은 자격증

기업 입사시험과 수험능력시험에 한문이 추가되면서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한국어문화회 △한자교육진흥회 △한국외국어평가원 △한자급수자격검정회 등 4개 기관에서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한자시험을 치르고 있으며, 이 중 한국어문화회에서 시행하는 것이 ‘한자능력검정시험’이다. 1급부터 3급Ⅱ까지가 공인급수이며 4급부터 8급까지는 교육급수이다. 모든 급수에 누구나 응시가능하다.

문제유형은 △독음 △훈음 △한자쓰기 △부수 △필순 △장단음 △반의어와 상대어 △동의어와 유의어 △동음이의어 △뜻풀이 △약자 △

한자능력검정시험

완성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급수에 따른 문항과 배정한자 수를 공인급수로 인정되는 1~3급까지만 살펴보면 △1급=200문항, 읽기 3,500자, 쓰기 2,005자 △2급=150문항, 읽기 2,355자, 쓰기 1,817자 △3급=150문항, 읽기 1,817자, 쓰기 1,000자이다.

1년에 3~4회의 시험이 있으며, 원서접수는 △1~8급=각 고사장 지정 접수처 방문접수 및 △1급=한국한자능력검정회 우편접수 및 인터넷 접수로 가능하다. 응시료는 △1급=3만 5천 원 △2~3급=1만 5천 원 △4~6급=1만 1천 원 △6~8급=1만원이다.

우리말 바로 알기

‘~갈게’와 ‘~갈께’

동국이가 친구에게 “오후 6시에 충무로로 갈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갈게’는 틀린 맞춤법이다. ‘ㄴ, ㄹ, ㄷ, ㅁ’ 받침 뒤에서는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어야 옳은 듯 보이기도 하지만, 비의문형어미의 경우 ‘~했을걸’ ‘~했을지’와 같이 예사소리로 적어야 한다. 반면 의문형 어미, 즉 ‘~을까’ ‘~니까’는 된소리로 적는 것이 맞다. 때문에 옳은 문장 표기는 “오후 6시에 충무로로 갈께”이다.

‘씩히다’와 ‘씩이다’

평소 문장을 쓸 때 ‘씩히다’와 ‘씩이다’ 중 어떤 것이 옳은 단어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그러나 표준어는 ‘씩이다’이다. ‘씩히다’의 사동형은 ‘-이’를 붙인 ‘씩히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 책을 씹혀 두니?”가 아닌 “왜 책을 씹어 두니?”가 옳은 문장이다. 단,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음식을 씹히다’, ‘감옥에 넣어 씹히다’ 등에는 ‘씩히다’를 쓸 수 있다고 풀이한다.

출처=우리말 배움터